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김 미 선(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여행 목적을 바탕으로 한 기행일기의 활용 |
| 2.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주된 여행 목적, 유람 | 5. 맺음말 |
| 3.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다양한 여행 목적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기행일기 1,279편을 대상으로 하여 여행 목적을 살펴보고, 기행일기의 활용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2장에서는 기행일기 속 주된 여행 목적으로서 유람(遊覽)을 살펴보았다. 기행일기 속 유람 장소는 명산(名山), 고도(古都), 사찰(寺刹), 누정(樓亭) 등 다양하였으며, 관동지방, 호남지방처럼 넓은 권역을 유람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람 과정을 보면 일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갔다가 인근을 유람한 경우가 많으며, 유람만을 위해 여행길에 오르는 것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기행일기 속 다양한 여행 목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과거 응시를 위한 여행, 스승을 배종하기 위한 여행, 관직이나 유배 관련하여 외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여행, 성묘나 문헌 간행 준비 등 선조 관련 여행, 기타 온천욕, 상소 준비, 모임 참석을 위한 여행 등 조선시대 다양한 목적의 여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여행 목적을 바탕으로 한 기행일기의 활용 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기행일기는 첫째, 선조들의 여행 관련 미시적인 삶 파악에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선조들의 여행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셋째, 선조 선양을 위한 활동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핵심어 : 기행일기, 여행 목적, 유람, 과거, 유배, 문헌 간행, 선조 선양

1. 머리말

필자는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담은 기행일기는 작품성, 완결성을 갖춘 일기이나, 연구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조사 전에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조사의 방향을 정하였으며,¹⁾ 기행일기 정리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²⁾ 그리고 약 2년간 기행일기 조사를 시행한 결과 1,279편에 이르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3757)

1)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이 논문에서는 기존연구에서의 기행일기 범주를 살핀 후 조선시대 기행일기 범주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사행일기는 기행일기와 별도로 분류하고, 여정이 들어있으나 강학, 관직, 유배, 전쟁, 장례 등이 중심이면 해당 일기에 넣으며, 과거시험, 제사와 같이 특별한 사건을 이유로 여정을 떠났으나 여정에서 보게 된 것들이 중심이면 기행일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기행일기 조사는 이와 같은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2) 김미선,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론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이 논문에서는 기행일기 정리 현황을 ‘일기 DB 내의 기행일기’·‘일기 해제집 내의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를 확인하였다.

기행일기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시기별, 여행 목적별, 여행 지역별로 살피고자 계획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후 첫 연구 성과로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시기별 현황과 가치를 밝힌 논문을 발표하였다.³⁾ 본 논문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1,200편이 넘는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행일기 활용을 살피고자 한다.

조선시대 일기는 생활일기, 강학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 사행일기, 유배일기, 전쟁일기, 의병일기, 사건일기, 장례일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에는 기행일기 외에도 여정이 일부 담겨 있는 일기들이 있다. 특히 사행일기와 유배일기는 여정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일기이며, 관직일기 중에도 암행어사로서 행차를 기록한 일기 같은 경우 여정이 담겨 있다. 또 전쟁 중 포로로 잡혀 간 경우에도 여정을 동반한다.

그런데 관직, 사행, 유배 등이 중심인 것은 기행일기와 별도로 분류하여 각각의 일기에 포함시켰다.⁴⁾ 이러한 일기 속 여행의 목적은 공통적이다. 관

기행일기'·'유기 관련 선집 내의 기행일기'로 나누어 살폈다. 그리고 기행일기 정리의 과제로 첫째, 기행일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둘째, 체계적이며 전반적인 기행일기 DB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산수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 외 다양한 주제별 기행일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이 논문에서는 1,279편의 기행일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15세기 17편, 16세기 65편, 17세기 246편, 18세기 417편, 19세기 481편, 20세기(1910년까지) 52편, 시기 미상 1편으로, 16세기 중반 이후 꾸준히 수량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 기행일기의 가치로 첫째, 우리나라 일기자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기행문학, 일기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조선시대 여행문화 및 명승 연구의 토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4) 이들 일기에 대해서는 기행일기에 포함시킬지, 별도로 분류할지에 대해 연구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필자는 일기 정리의 효율성, 작품의 내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일기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논문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에서 자세히

료로서, 사절로서 임무 수행, 벌을 받는 자로서의 의무 이행이 여행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기행일기는 여정이 끝나면 일기도 끝나 여행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떠난 다양한 여행을 담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을 기록한 생활일기 속에 잠깐 여행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별도로 기록한 기행일기를 남기고 후손들이 이러한 글을 문집 등에 수록했다는 것은 그 여행을 그만큼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행일기는 직접 경험을 진솔하게 기록하는 일기의 특성상 여행의 과정이 다른 문학 장르보다 잘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조선시대 선조들의 여행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79편의 기행일기를 살펴 본 결과 다양한 여행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중 가장 많은 것은 유람(遊覽)으로, 전체 기행일기의 약 80%를 차지하였다.⁶⁾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2장에서는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주된 여행 목적으로서 유람을 살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유람 외의 다양한 여행 목적을 살펴보고, 경험의 유사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 볼 것이다. 조선시대에 산수 유람이 성행하여 기행일기 중에도 이와 관련된 작품이 많고, 또 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⁷⁾ 그런데

언급한 바 있다.

- 5) 이를 위해 1,279편 전체 일기를 여행 목적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으며, 지면의 한계상 전체 일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여행 목적별로 대표적인 일기들을 예로 들어 제시 하였다.
- 6) 기행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여행의 목적을 한 가지로 정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제사 참여, 유람, 지인 방문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섞여 여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된 목적을 중심으로 기행일기를 살폈으며,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유람을 목적으로 한 일기가 약 80%라고 대략적인 비율만을 제시하였다.
- 7) 정민 편,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1~10, 민창문화사, 1996; 심경호, 『산문기행 -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경순,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전송열·허경진 편역,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돌베개,

유람 외의 여행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⁸⁾ 작품 수는 유람을 기록한 일기에 비해 적지만, 조선시대 다양한 여행 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러한 여행 목적을 바탕으로 한 기행일기의 활용 방안을 정리할 것이다.

2.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주된 여행 목적, 유람

조선시대에 유람을 위한 여행은 매우 성행하였으며, 유람 후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익히 언급해 왔다.

이종묵은 간접적으로 자연을 감상하는 ‘와유(臥遊)’를 연구하면서, 산수 유람을 대신할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가 기행문이며, 17세기 전후 산수기행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산수유기 역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였다.⁹⁾ 이상균은 조선시대에 자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유람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유람문화 발달의 요인으로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유람문화가 조선에 유입된 점, 교통망의 발달과 유람정보의 섭렵이 전대(前代)보다 쉬워졌다는 점, 조선시대 문인들이 문예취향을 즐기기

2016 등. 이외 금강산, 무등산, 백두산, 속리산, 주왕산, 지리산, 청량산, 한라산 등에 대한 유산기 선집과 연구 논문들이 있다.

8) 정치영, 「日記를 이용한 조선중기 양반관료의 여행 연구」, 『역사민속학』 26, 한국 역사민속학회, 2008; 최은주, 「조선후기 영남선비들의 여행과 공간감성 - 18세기 영남선비 淸臺 權相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한문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박영호, 「조선시대 관료의 공적 여행과 그 기록 - 晩悟 朴來謙의 경우」, 『동방한문학』 59, 동방한문학회, 2014 등. 일기를 통해 한 개인의 여행을 살핀 연구로, 정치영과 최은주는 생활일기를 대상으로, 박영호는 관직일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9) 이종묵,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81면.

위해 산수 유람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다는 점, 당면한 정치적 현실로 인해 사대부들이 강호에 퇴처(退處)하여 산수를 애호하며 즐겼다는 점을 들었다.¹⁰⁾ 정치영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산수 유람을 중요한 공부 수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유람 여행이 성행하였다고 보았다.¹¹⁾

산수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작품을 산수유기라고 하며 이중에 일기 형식인 것은 기행일기의 범주에도 속한다. 이렇듯 산수 유람이 성행하였던 조선시대 상황에 비례하여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람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유람은 ‘산수’에 대한 유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람의 사전적 의미는 “돌아다니며 구경함”으로, 기행일기를 살펴 본 결과 명산(名山), 고도(古都), 누정(樓亭) 등 조선시대 사람들이 유람한 곳은 다양하였다. 조선시대의 일기를 정리, 연구한 황위주는 기행일기를 ‘유산록 계열’, ‘여행기 계열’, ‘종합여행·기타’로 나누었으며,¹²⁾ 최은주는 산수를 유람한 유산록과 특정지방의 명승지 일대를 두루 돌아보는 여행기로 나누었다.¹³⁾ 산수, 그중에서도 산을 유람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언급한 여행기도 산수와 여행 대상이 다를 뿐 유람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을 연구한 본 논문에서는 기행일기의 주된 목적인 유람으로 함께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유람이 목적인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대략적인 면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기행일기 속 유람 장소를 살펴보자. 유람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의 유람 장소 중 가장 많은 것은 산수, 그중에서도 명산이었다. 대표적인 명산

10)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15면.

11)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10면.

12)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학진흥원, 2007, 838~849면.

13)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화회, 2009, 14~15면.

인 지리산,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조선시대 기행일기가 처음 나타난 15세기부터 꾸준히 발견되며,¹⁴⁾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의 산을 유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계룡산, 금강산, 무등산, 백두산, 속리산, 주왕산, 청량산, 청평산, 한라산 등에 대한 유람을 기록한 작품들을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¹⁵⁾ 현재까지 유람 여행 작품이 정리되지 않은 소백산 기행일기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14) 15세기 지리산, 금강산 유람을 기록한 일기로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유두류록(遊頭流錄)」(1472년), 성현(成俔, 1439~1504)의 「동행기(東行記)」(1481년),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1485년)와 「지리산일과(智異山日課)」(1487년), 김일손(金駟孫, 1464~1498)의 「두류기행록(頭流紀行錄)」(1489년) 등이 있다.
- 15) 강정화 외, 『지리산 유람록의 이해』, 보고서, 2016; 강정화·황의열 편,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2016; 강현경, 「鷄籠山 遊記에 대한 研究」, 『한국한문학회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1~3, 민속원, 2016; 권혁진, 「淸平山 遊山記 연구」, 『인문과학연구』 2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김대현 외, 『국역 無等山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김대현, 「無等山 遊山記에 대한 研究」, 『남경 박준규박사 정년기념논총』, 남경 박준규박사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8; 김순영, 「무등산 유산기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용곤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답사기』, 혜안, 1998; 김용남, 「조선후기 俗離山遊記에 나타난 산수관」, 『개신어문연구』 23, 개신어문학회, 2005; 김용남,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2009; 박영호·김우동 역, 『국역 주왕산유람록』 I·II, 청송군, 2013~2014; 손오규, 「한라산 山水遊記의 산수문학적 연구」, 『퇴계학논총』 26,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15;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길구, 「鷄籠山 遊記의 研究 - 콘텐츠 活用方案 摸索을 겸하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상태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1998; 정지아, 「淸涼山 遊山錄과 智異山 遊山錄 比較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청량산박물관 편역,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I, 민속원, 2007~2012;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등.

<표1> 소백산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유소백산록(遊小白山錄)	퇴계집 (退溪集)	이황 (李滉)	1501~1570	1549년 4월 22일~26일
2	유소백산록(遊小白山錄)	추월당집 (秋月堂集)	한산두 (韓山斗)	1556~1627	1586년 3월
3	소백유록 (小白遊錄)	평암문집 (平菴文集)	권정침 (權正沈)	1710~1767	1740년 4월 19일~5월 13일
4	소백유산기(小白遊山記)	팔우현집 (八友軒集)	조보양 (趙普陽)	1709~1788	1761년 4월
5	유소백산록(遊小白山錄)	소암집 (素巖集)	김진동 (金鎭東)	1727~1800	1774년 3월~4월
6	유소백기 (遊小白記)	송서집 (松西集)	강운 (姜攄)	1772~1834	1828년 봄
7	소백산지로기(小白山指路記)	수정재집 (壽靜齋集)	유정문 (柳鼎文)	1782~1839	1828년 4월 22일~5월
8	소백유산록(小白遊山錄)	강소잡록 (講所雜錄)	서성렬 (徐成烈) 외	19세기	1828년 4월 23일~27일
9	유소백산삼동기(遊小白山三洞記)	희재문집 (希齋文集)	김취준 (金輝潛)	1820~1898	1846년 5월

소백산은 금강산, 지리산, 청량산처럼 조선시대에 많이 찾았던 산이 아니다.¹⁶⁾ 그렇기 때문에 소백산 기행일기나 산수유기를 정리한 연구가 아직까

16) 유기 선집에 수록된 작품 중 일기 형식인 것을 정리한 결과 지리산 기행일기는 85편, 청량산 기행일기는 81편, 주왕산 기행일기는 37편, 금강산 기행일기는 26

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백산을 노래한 한시에 대한 연구만을 볼 수 있었다.¹⁷⁾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9편에 이르는 소백산 기행일기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곳곳의 산을 조선시대에 유람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경치가 빼어나고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산을 많이 유람하였으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로의 유람 여행도 떠났다. 개성, 경주 등의 고도(古都), 단군 관련 역사유적이 있고 병자호란 등 역사적 사건을 겪었던 강화도 등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가 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이나 옛 도읍지는 여행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한다. 기행일기 속 유람 지역을 살펴본 결과 사찰, 누정, 서원 등과 같은 단일 건물, 굴, 폭포 등과 같은 특정 자연물을 유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의 작품으로 성간(成侃, 1427~1456)의 「유관악사북암기(遊冠岳寺北巖記)」(1443년), 채수(蔡壽, 1449~1515)의 「망양정기(望洋亭記)」(1481년),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유도봉서원기(遊道峯書院記)」(1615년),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유가수굴기(遊佳殊窟記)」(1489년), 하수일(河受一, 1553~1612)의 「유황계폭포기(遊黃溪瀑布記)」(1582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유람은 조선후기까지 꾸준히 이어진다.

산을 유람하다보면 사찰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누정에 잠깐 머물다 가기도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행일기는 제목에서부터 그 한 건물이 중심 여행지임이 드러나며, 일기의 내용도 그 건물 유람에 집중되어 있다.

편, 무등산 기행일기는 18편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논문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국학연구논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428~430면)에 설명이 있다. 금강산 기행일기는 논문 발표 당시 3권까지 출간된 번역서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작품보다 정리된 것이 적은 편이며, 논문 발표 이후인 2019년 4월에 4~7권이 출간되었다.(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1~3, 민속원, 201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4~7, 민속원, 2019)

17) 임노직, 「소백산의 문학적 형상화 고찰」, 『한문학논집』 38, 근역한문화회, 2014.

사찰, 누정, 서원 등은 유람 공간이 좁은 편이다. 반대로 관동지방, 호남지방처럼 넓은 권역을 유람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홍인우(洪仁祐, 1515~1554)의 「관동일록(關東日錄)」(1553년),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남유일기(南遊日記)」(1717년)와 같은 작품들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람 여행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을까? 스승을 방문하거나 과거시험을 치르러 가고, 유배지에 있는 아버지를 뵈러 가고, 제사에 참여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반드시 가야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람은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이긴 하나 반드시 가야할 의무나 이유가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를 살펴보면, 유배나 관직, 제사 등으로 인해 어떤 지역을 가게 된 상황을 계기로, 그 인근의 명산 등을 유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타산은 삼척부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골짜기가 깊고 수석이 기묘하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지가 오래되었다. 올봄에 나는 공무에 지쳐 한번 이 피로를 시원하게 씻어 버릴 생각을 하고 김안경, 최인기, 정유성, 김안복 등과 함께 약속했다.¹⁸⁾

위는 김효원(金孝元, 1542~1590)의 「두타산일기(頭陀山日記)」 중 여행 경위를 설명한 부분이다. 인용한 부분 앞에서는 영동의 산수 중 금강산 다음이 두타산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빼어난 경치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인용한 부분 다음부터는 20일부터 26일까지 날짜가 쓰인 후 날짜별로 두타산 유람이 기록되어 있다. 김효원은 1577년 봄에 강원도 삼척부사로 있던 중 인근의 두타산을 유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직에 있던 중의 유람이긴 하나 산을 유람한 것이 일기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여행 목적을 유람으로 보았다. 다른 일기도 마

18) 頭陀實在三陟府之西北，洞壑之邃，水石之奇，膾炙人口者久矣。今年春，余困於朱墨，思一脫灑，與金君安慶崔君仁起鄭君惟誠金君安福約。- 金孝元, 「頭陀山日記」, 『省菴遺稿』卷二; 전승열·허경진 편역,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돌베개, 2016, 56면.

찬가지로 신안 우이도 유배지에서 잠깐 인근을 유람한 일만을 기록한 김약행(金若行, 1718~1788)의 「유대흑기(遊大黑記)」(1799년)와 같은 경우도 여행 목적을 유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일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갔다가 인근의 명산 등을 유람한 경우가 많으며, 유람 자체를 위해 여행길에 오르는 것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¹⁹⁾ 예컨대 1671년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동유기(東遊記)」를 보면, 동생이 혼자서 한 달 정도 금강산을 여행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유람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여 여행 계획을 세워 떠나게 된다.

3.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다양한 여행 목적

본 장에서는 유람 외 다양한 목적의 기행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많기 때문에, 작품 소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유람 외의 목적으로 여행을 떠난 기행일기를 살펴본 결과 ‘과거 응시 및 스승 관련’, ‘관직, 유배 관련’, ‘성묘, 문헌 간행 등 선조 관련’, ‘기타(운천, 상소, 모임 등)’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앞서 2장에서 관직생활, 유배생활 중에 유람을 목적으로 인근을 여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본 장에서 ‘관직, 유배 관련’은 관직이나 유배 관련하여 유람이 목적이 아닌 여정을 떠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관료로서의

19) 이와 관련하여 송혁기는 『조선 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월인, 2007, 70면)에서 “별도의 계획 하에 관련 여행기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을 수립, 일행을 구성하고 여장을 꾸려 승경을 찾아 나서며, 상당한 기간의 여정을 거친 뒤 심혈을 기울여 그 기록을 글이나 그림으로 남기고, 이를 서로 돌려보며 와유의 자료로 향유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17세기말~18세기초 산수 유람의 특징이라 하였다.

임무로 여행을 떠난 일을 기록한 관직일기, 유배형을 받아 형집행의 일부로 여정을 떠난 일을 기록한 유배일기도 본 분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작품은 기행일기가 아닌 관직일기, 유배일기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일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 기행일기에 속하되, 관직, 유배 관련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로, 절의 제목에 관련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1) 과거 응시 및 스승 관련

조선시대에 한문 글쓰기를 생활화했던 사람은 양반, 그중에서도 남자가 대부분이었다. 한문 기행일기를 남긴 사람도 대부분 선비들로,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 목적 중에 과거(科擧) 응시가 있다. 과거 합격은 조선시대 선비가 이루어야할 중요한 과업으로, 많은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러한 선비들의 과거 시험을 위한 여정은 생활일기 속에도 담겨 있다. 문숙자는 경상도의 선비 노상추(盧尙樞, 1746~1829)가 68년간 쓴 생활일기를 살펴면서, 일기를 통해 14년에 걸친 과행을 파악하기도 하였다.²⁰⁾ 그런데 과거 응시를 위한 여정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기행일기도 있어, 과거를 위한 여행길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

<표2> 과거 응시를 위한 여정을 담은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괴황일기 (槐黃日記)	목산고 (木山藁)	이기경 (李基敬)	1713~1787	1737년 9월 12일~1738년 4월 20일
2	기미행정력(己未 行程歷)	목산고 (木山藁)	이기경 (李基敬)	1713~1787	1739년 8월 26일~12월 15일
3	은유일기 (恩遊日記)	단일본	신상악 (申象岳)	1713~?	1765년 1월 29일~5월 10일

20)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 무관 노상추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너머북스, 2009, 89~101면, 139~147면.

4	여유일록 (旅遊日錄)	죽록유고 (竹麓遺稿)	윤효관(尹孝寬) 의 후손 ²¹⁾	미상	1777년 2월~1778년 1월 2일
5	서행일기 (西行日記)	태을암집 (太乙菴集)	신국빈 (申國賓)	1724~1799	1795년 1월 23일~3월
6	담락행일기(潭洛 行日記)	사농와집 (士農窩集)	하익범 (河益範)	1767~1813	1800년 3월 2일~4월 6일
7	정해회행일기(丁 亥會行日記)	백파집 (白波集)	김계탁 (金再鐸)	1776~1846	1839년 9월 2일~11월 1일
8	서행일기 (西行日記)	덕암만록 (德巖漫錄)	나도규 (羅叟圭)	1826~1885	1860년 2월 28일~미상
9	부례위려락일기(赴禮圍戾洛日記)	몽암집 (夢巖集)	이종욱 (李鍾勛)	?~1926	1891년 8월 6일~11월 6일
10	서유만록 (西遊漫錄)	단일본	이흠 (李嶽)	1842~1928	1897년 2월~1907년 6월

위는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중 과거 응시를 위한 여정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일기들이다. 대부분 지방의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까지 오고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기경의 「기미행정력」, 신상악의 「은유일기」의 경우 과거에 합격한 후 친지들을 방문하고 선조의 산소에 성묘하는 여정까지 담고 있다. 하익범의 경우 과거 시험을 치르고 이동하는 길에 화양동을 유람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 한양까지 길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과거 응시를 위해 길을 나선 김에 유람길에 오르기도 한다. 이때 과거 시험이 유람의 전제로서 잠깐 언급되고 유람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경우는 위의 표에 넣지 않고 유람이 목적인 일기로 보았으며, 위의 일기들에서는 과거 시험을 위한 여정과 과거 시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과거를 준비하며 강학(講學)에 매진하지만, 과거 시험만이 강학의 이유인 것은 아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 과거 시험을 포기하더라

21) 윤효관의 『죽록유고』에 수록된 「여유일록」은 윤효관(1745~1823)이 담양 향시 합격 후, 한양에 올라가 문과에 급제하고 고향으로 오는 여정을 후손이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 학문을 평생 이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스승과의 만남도 과거 시험 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스승에게 수학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도 하며, 스승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또는 여행길에 오르는 스승을 배종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도 한다. 기행일기 중에는 이렇듯 스승 관련하여 여행을 떠난 일을 기록한 일기들이 있다. 그중에서 스승 배종(陪從)을 목적으로 여행을 떠난 일을 기록한 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스승 배종을 위한 여정을 담은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한강선생봉산옥행록(寒岡先生蓬山浴行錄)	석담집(石潭集)	이윤우(李潤雨)	1569~1634	1617년 7월 20일~9월 5일
2	종유일기(從遊日記)	솔성재유고(率性齋遺稿)	박정일(朴楨一)	1775~1834	미상(4월)
3	배종일기(陪從日記)	창암집(滄庵集)	조종덕(趙鍾愍)	1858~1927	1898년 3월 1일~4월 3일
4	승유일기(勝遊日記)	복재집(復齋集)	위계민(魏啓玫)	1855~1923	1898년 4월 15일~미상
5	남유일기(南遊日記)	단일본	곽한소(郭漢紹)	1882~1927	1902년 4월 19일~8월 10일
6	사문배종일기(師門陪從日記)	서헌유고(瑞軒遺稿)	안규용(安圭容)	1860~1910	1907년 3월 10일~5월 6일

이윤우의 「한강선생봉산옥행록」은 스승인 정구(鄭述, 1543~1620)가 온천욕을 떠나자 모시고 다녀온 일을 기록한 것이다. 정구의 입장에서 이 여정은 온천욕을 위한 것이지만, 이 일기를 쓴 이윤우에게는 스승을 배종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다. 조종덕의 「배종일기」의 경우 스승이 월악산을 유람할 때

모시고 다녀온 일을 기록한 것으로, 스승의 입장에서는 유람을 목적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지만 조종덕의 여행 목적은 스승 배종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집에 실린 이 일기의 제목도 ‘배종일기’가 되었을 것이다. 박정일은 관례를 행하면서 스승을 초대하자 모시고 다녀온 일을, 위계민은 송병선이 명산을 유람하다 낭주에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찾아가 배종한 일을, 곽한소는 최익현이 경남 하동에 준공된 문창선생영당에 배알하러 가자 모시고 간 일을, 안규용은 석채례를 행하던 중 스승이 잡혀가자 배종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2) 관직, 유배 관련

조선시대 선비가 다른 지역에 가 오랜 시간 머무르고 생활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로 관직과 유배가 있다. 유람이나 과거 응시를 위해 여행을 떠난 경우에는 유람, 과거가 끝나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관직이나 유배는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며, 유배의 경우 그 기간이 몇 십 년에 이르기도 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관직생활, 유배생활을 기록한 일기는 기행일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관직이나 유배로 인해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물게 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난 일을 기록한 일기들이 발견되며, 관직이나 유배가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만을 담은 일기들도 발견된다. 이러한 일기는 관직, 유배 관련한 여정을 담은 기행일기라 할 수 있다.

<표4> 관직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담은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물연도	일기 기간
1	남명소승 (南溟小乘)	백호집 (白湖集)	임제 (林悌)	1549~1587	1577년
2	만관록 (灣館錄)	저촌유고 (柀村遺稿)	심육 (沈鎭)	1685~1753	1710년 7월 20일~1711년 11월 4일

3	북정일기 (北征日記)	무민문집 (無悶文集)	이여규 (李汝圭)	1713~1772	1756년 9월 16일~10월 21일
4	서해여언 (西海旅言)	청장관전서 (靑莊館全書)	이덕무 (李德懋)	1741~1793	1768년 10월 4일~24일
5	북성록 (北省錄)	단일본	미상 (유범휴의 아들)	18세기	1797년 10월 27일~1798년 7월 4일

위는 관직 관련 기행일기 중 관직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다녀온 일을 기록한 일기의 예시이다. 임제는 제주목사인 아버지를 뵙기 위해 제주도에 다녀온 일을, 심육은 의주부윤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간 일을, 이여규는 함경남병사에 종사관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뵈러 간 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범휴(柳範休, 1744~1823)의 아들도 안변부사로 있는 아버지를 뵈러 간 일을 기록하였다. 이덕무의 「서해여언」은 조금 특별한 경우로, 황해도 장연의 조니진 만호가 된 남편을 따라 간 종누이를 만나러 간 일을 기록한 것이다.

나의 종자서(從姊婿) 유군이 조니진 만호가 되어 종누이가 따라갔었는데, 그의 시아버지 관윤의 상을 당하였다. 우리 숙모가 울면서 나에게 “급히 말을 달려 누이를 데려오라.”고 하기에 감히 마다할 수 없었다. 다만 내 나이가 너무 젊어서 문 밖 5~6백 리를 나가본 것은 그때가 평생 처음이었다.²²⁾

위는 「서해여언」의 첫 부분이다.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된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이후 간략하게 이 글에 대해 언급한 후 날짜별로 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덕무의 여행은 상을 당한 종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한 것으로, 그 종누이 남편이 관직으로 인해 외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일기는 1768년 10월 4일에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24일에 집

22) 余從姊婿俞君，爲助泥鎭萬戶，從姊隨往，姊遭其舅判尹之喪。我叔母泣謂余，踣一騎，護姊而來，余不敢辭。余年甚少，出門五六百里，平生最初事。- 李德懋，「西海旅言」，『靑莊館全書』卷六十二；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고전번역서 ‘청장관전서’

으로 돌아오면서 끝난다.

<표5> 유배인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담은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봉산일기 (蓬山日記)	묵와집 (默窩集)	유응수 (柳應壽)	1648~1677	1677년 9월 27일~11월 3일
2	기소호행 (記蘇湖行)	매야집 (邁莖集)	서활 (徐活)	1761~1838	1806년 1월 14일~15일
3	남행일기 (南行日記)	농산문집 (農山文集)	이광덕 (李匡德)	1762~1824	1814년 7월~8월
4	호남기행 (湖南紀行)	직재집 (直齋集)	김익동 (金翊東)	1793~1860	1855년 7월 21일~8월 15일
5	남행일기 (南行日記)	단일본	최영조 (崔永祚)	1859~?	1876년 이후
6	흑산록 (黑山錄)	동해집 (東海集)	김훈 (金勳)	1836~1910	1878년 7월 1일~9월 11일

위는 유배 관련 기행일기 중 유배인을 만나러 간 여정을 기록한 일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중 서활의 「기소호행」과 이광덕의 「남행일기」는 유배지로 찾아 간 것이 아니라, 유배인이 유배지로 출발하기 전에 만나러 간 일을 기록한 것이다. 서활은 사도세자 관련 만인소를 주도한 일로 이우(李瑬, 1739~1810)가 유배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던 일을 기록하였고, 이광덕은 홍시제(洪時濟, 1758~?)가 체재공의 신원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된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찾아갔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유배를 가게 된 사람을 위로하러 찾아가는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가 있으며, 먼 유배지까지 직접 만나러 간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도 있다. 유응수는 봉산에 유배 중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김익동은 지도에 유

배 중인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을, 최영조와 김훈은 각각 흑산도에 유배 중인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을 만나러 간 일을 기록하였다. 전남의 섬인 흑산도는 육지와 거리가 먼 섬으로, 조선시대에 험한 뱃길로 이 섬까지 여행 길에 오른 것은 유배 중인 아버지,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 성묘, 문헌 간행 등 선조 관련

『논어(論語)』에 “초상(初喪)을 삼가하고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갈 것이다.”²³⁾라는 말이 있다. 돌아가신 선조를 추모하는 것은 유학에서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은 성묘, 제사 등 선조를 추모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성묘를 목적으로 한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를 몇 편 발견할 수 있었다.

<표6> 성묘를 위한 여정을 담은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화산기 (花山記)	곡운집 (谷雲集)	김수증 (金壽增)	1624~1701	1686년 1월 20일~28일
2	호남성묘록 (湖南省墓錄)	함벽당집 (涵碧堂集)	유경시 (柳敬時)	1666~1737	1724년 윤4월 4일~11일
3	파산성묘기행 (巴山省墓記行)	만회집 (晩悔集)	안경시 (安景時)	1712~1794	1775년
4	대덕산성묘일기(大 德山省墓日記)	내용유고 (乃翁遺稿)	안치권 (安致權)	1745~1813	1796년 9월 26일~10월

23) 慎終追遠，民德歸厚矣。- 「學而」, 『論語集註』;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4, 25면.

5	사군행기(四郡行記)	석천유고 (石泉遺稿)	신작 (申綽)	1760~1828	미상(9월)
6	계미기행(癸未記行)	노주집 (老洲集)	오희상 (吳熙常)	1763~1833	1823년 5월 4일~12일
7	서행노정기(西行路 程記)	쇄록 (瑣錄)	김석규 (金碩奎)	1826~1883	미상
8	남정기(南征記)	수월사고 (水月私稿)	박계망 (朴齊望)	19세기	1868년 7월 16일~8월 11일
9	금성일기(錦城日記)	송애집 (松厓集)	이지헌 (李志憲)	1840~1898	1877년 10월 5일~30일

위의 일기들은 성묘를 위한 여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선조들이 이 성묘를 중시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문집에도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경시의 「호남성묘록」, 안경시의 「파산성묘기행」, 안치권의 「대덕산성묘일기」의 경우 제목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묘를 다녀 온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음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선조를 추모하면서 그들을 선양하는 방법으로 선조에 대한 글을 청하고, 선조가 쓴 글과 선조에 대한 글을 모은 문집과 같은 문헌을 간행하는 것이 있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문집 간행은 매우 활성화 되었는데,²⁴⁾ 기행일기 중에는 이러한 문헌 관련 여행을 담은 일기들이 있다.

24) 이와 관련 성봉현은 『누관고』를 통해 본 정조대의 책판 현황(『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4, 188면)에서 “조선후기에는 책판을 통해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고자 하는 사족들의 열의가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이러한 문집이 가장 활발히 간행된 서책 종류였다. 조선후기 문집 간행 열기는 문집이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고 여기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표7> 문헌 관련 여정을 담은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회천일기 (懷川日記)	송백당집 (松柏堂集)	이실지 (李實之)	1624~1704	1682년 3월 2일~4월 2일
2	청상갈문일기 (淸狀岡文日記)	용이와집 (龍耳窩集)	권뢰 (權珪)	1800~1873	1832년 2월 29일~4월 3일
3	동정일기 (東征日記)	용이와집 (龍耳窩集)	권뢰 (權珪)	1800~1873	1846년 7월 9일~8월 7일
4	동협행기 (峒峽行記)	호산집 (壺山集)	박문호 (朴文鎬)	1846~1918	1892년 6월~10월
5	도원계일기 (到遠溪日記)	창암집 (滄庵集)	조종덕 (趙鍾德)	1858~1927	1897년 2월 27일~3월 10일
6	자문산지화양동기 (自文山至華陽洞記)	창암집 (滄庵集)	조종덕 (趙鍾德)	1858~1927	1897년 6월
7	서유록 (西遊錄)	후석유고 (後石遺稿)	오준선 (吳駿善)	1851~1931	1900년 9월 12일~10월
8	정남일기 (征南日記)	지헌유고 (止軒遺稿)	강희진 (康熙鎭)	1878~1942	1902년 1월 2일~2월 23일
9	재정교남일기 (再征嶠南日記)	지헌유고 (止軒遺稿)	강희진 (康熙鎭)	1878~1942	1902년 4월 6일~5월 8일
10	정산왕환일기 (定山往還日記)	산곡유고 (山谷遺稿)	최기모 (崔基模)	1869~1925	1903년 5월 23일~윤5월 14일
11	영가기행 (永嘉紀行)	초려집 (草廬集)	김상수 (金相壽)	1875~1955	1906년 4월 22일~5월 5일

이실지의 「회천일기」, 권뢰의 「청상갈문일기」, 박문호의 「동협행기」, 조종덕의 「도원계일기」, 오준선의 「서유록」은 신도비명, 묘갈명, 행장 등을 받기 위한 여정을 기록한 것이며, 권뢰의 「동정일기」, 김상수의 「영가기행」은 기문을 받기 위한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조종덕의 「자문산지화양동기」, 강희진의 「정남일기」와 「재정교남일기」는 문집 간행 관련 일을 상의하기 위한 여정을 기록한 것이며, 최기모의 「정산왕환일기」는 대동보 편수의 일로 보소(譜所)에 다녀온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듯 글을 받거나 문헌 간행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집 간행이 활발한 조선후기에 이러한 일기도 많이 발견된다. 권뢰는 문헌 관련 일기 외에 「경행일록(京行日錄)」(1829년 9월 3일~1830년 1월 6일), 「정유오월경행일록(丁酉五月京行日錄)」(1837년 5월 16일~1848년 2월)도 남겼는데, 이들 일기를 통해서선 선조의 정려를 청하기 위한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4) 기타(온천, 상소, 모임 등)

유람 외 여행 목적 중 ‘과거 응시 및 스승 관련’, ‘관직, 유배 관련’, ‘성묘, 문헌 간행 등 선조 관련’ 등 앞선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기타’로 묶었다. 여기에는 온천을 위한 여행, 상소를 올리기 위한 여행,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여행 등이 해당된다.

조선시대에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중요한 치료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호는 사도세자의 온천여행을 분석하면서 “조선시대에 온천욕은 근골이 오그라들거나 각종 ‘창’을 치료하는 유용한 치료법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조선 초부터 왕실의 온천 행차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질 좋은 온천을 찾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었다.”고 언급하였다.²⁵⁾ 그는 사도세자의 온천여행을 일기체로 기록한 「온천일기(溫泉日記)」를 주요 자료로 하였는데,

25) 김호, 「정치적 시험의 장이 된 왕세자의 온천여행 - 조선 왕가의 치병기」, 『조선 사람의 조선여행』, 글항아리, 2014, 56~57면.

이는 승정원에서 편찬한 것이다.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살펴본 결과 왕가가 아닌 개인이 온천욕을 위해 여행을 떠난 일을 기록한 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운(朴雲, 1493~1562)의 「관동행록(關東行錄)」(1552년), 문경호(文景虎, 1556~1619)의 「동행록(東行錄)」(1589년), 박상연(朴尙淵, 1631~?)의 「욕온천기(浴溫泉記)」(1677년),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이진기행록(伊珍紀行錄)」(1854년)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각 평해, 울주, 연안부, 이천의 온천에 다녀온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온천은 아니지만 요양을 위해 영천의 초천에 다녀 온 일을 기록한 이충민(李忠民)의 「영천초천일기(榮川椒泉日記)」(1629년)도 있다. 건강을 위한 여행이라는 점에서 온천 여행과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조선시대에 상소(上疏)는 임금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조선시대 기행일기 중 상소를 올리기 위한 여정을 기록한 일기를 발견하였다. 스승 이현일(李玄逸)의 변무소(辨誣疏)를 올리고자하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일을 기록한 김상정(金尙鼎, 1668~1728)의 「북행록(北行錄)」(1722년), 선조를 추송하는 상소를 올리기 위해 서울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이흠(李嶽, 1842~1928)의 「서행일록(西行日錄)」(1899년)이 그것이다.

계미년(1643) 3월 17일 나는 배등암(裊藤庵) 어른과 고양(高陽)의 개진보(開津步)에서 만나기로 한 오래된 약속을 지켰다. 대개 작년 겨울 내가 일선(一善)에 성묘를 하고 등암의 집에 들러 묵었는데, 주인이 병을 무릅쓰고 회연서원까지 쫓아와 작별하였다. 이별하는 날에 마음을 견잡을 수 없어 손을 잡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나이는 예순에 가깝고 나의 나이는 일흔이 다 되어 가는데, 인간 세상에 자취를 남기는 게 앞으로 얼마나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죽기 전에 다시 빨리 만나기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노년에 먼 길을 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만 두지 않는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산포(開山浦)는 동서원 하류에 있고, 소나무 숲과 백사장 거의 물이 빼어납니다. 이곳에서 가고 저곳에서 오면 거리가 같으니, 만남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어찌 이곳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등암이 “좋다.”라고 하였다.²⁶⁾

위는 조임도(趙任道, 1585~1664)의 「개진기회록(開津期會錄)」의 첫 부분으로, 1년 전에 성묘를 하고 묵었던 집의 주인이 다시 만나기를 청하여 약속을 잡는 과정이 나와 있다. 이후 약속을 지켜 그를 만나기 위해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경우 여행의 목적은 거창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데에 있다.

이외 조문 등 일을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기록한 허목(許穆, 1595~1682)의 「갑진기행(甲辰記行)」(1664년), 도산서원 건립을 위한 모임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조성한(趙晟漢, 1628~1686)의 「회덕행록(懷德行錄)」(1667년), 벗의 청으로 옥산에 가던 일을 기록한 이정엄(李鼎儼, 1755~1831)의 「옥산동행기(玉山同行記)」(19세기 추정) 등의 작품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여행 목적을 볼 수가 있다.

4. 여행 목적을 바탕으로 한 기행일기의 활용

지금까지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중 가장 많은 것은 유람이었으며, 유람 외 다양한 여행 목적은 ‘과거 응시 및 스승 관련’, ‘관직, 유배 관련’, ‘성묘, 문헌 간행 등 선조 관련’, ‘기타(온천, 상소, 모임 등)’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목적의 여행을 담은 기행일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행 목적을 바탕으로 한 기행일기의 활용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6) 昭陽協洽之歲姑洗之月十有七日，余與藤庵喪丈會于高陽之開津步，踐宿約也。蓋去年冬，余省墓於一善，歷宿藤庵草廬，主人力疾迫別於檜淵書院。解携之朝，不能爲情，握手歎曰，君垂耳順，我迫從心，寄跡人間，能復幾何，何以則更圖簪盍於就木之前乎。余曰，老境遠涉誠難矣，無已則有一焉，開山渡口在道東下流，有松林沙水之勝，此去彼來，道里均焉，欲謀會，盍於此相要。藤庵曰諾。 - 趙任道, 「開津期會錄」, 『澗松集』別集 卷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고전번역서 ‘간송집’

첫째, 조선시대 기행일기는 선조들의 여행 관련 미시적인 삶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기행일기를 살펴 본 결과 유람, 과거 응시, 스승 배종, 관직이나 유배로 인해 외지에 가 있는 사람 방문, 성묘, 문헌 간행 준비, 온천욕, 상소 준비, 모임 참석 등 여행의 목적이 다양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기행일기 속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가게 되는 다양한 여행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1,200편이 넘는 기행일기는 각각의 목적에 따른 여행 과정을 담되, 본인의 직접 경험을 일기라는 비교적 진솔한 문체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을 잡고, 어떠한 사람들과 여행길에 오르는지,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어떠한 시설에서 숙박을 하는지 등 세세한 여행의 과정이 기행일기에 담겨 있다.

말안장을 풀고 종을 돌려보내고는 공생 김세한을 데리고 대나무 지팡이에 다 짚신만을 신은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 올라갔다. 산 중턱에도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속세를 떠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 암자의 승려 10여 명이 가마를 메고 내려왔다. 이에 가마를 타고서 골짜기로 들어가니 기이한 봉우리들이 가파르면서도 험준하였다.²⁷⁾

위는 1604년의 월출산 유람 여행을 기록한 정상(鄭詳, 1533~1609)의 「월출산유산록(月出山遊山錄)」 중 첫날인 3월 26일 일기의 일부를 예로 든 것이다. 이를 통해 말을 타고 산 아래까지 이동 후 대나무 지팡이에 짚신만을 신은 채 도보로 걷다가, 승려들이 메고 온 가마를 이용하여 산에 올라가는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양적으로도 풍부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유람 여행 과정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에 기행일기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과거에

27) 卸鞍送奴，率貢生金世間，竹杖芒鞋，信步以上。纔到半腹，已非塵世矣。……菴僧十餘，肩輿下來。遂擔以行洞狹，而奇峯峭而峻。- 鄭詳，「月出山遊山錄」，《滄洲遺稿》卷一；전송열·허경진 편역, 앞의 책, 2016, 72~73면.

응시하기 위한 여정과 스승을 모시고 떠나는 여행, 관직이나 유배로 인해 외지에 나간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여행, 성묘나 온천욕을 위한 여행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행일기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선조들의 여행 관련 미시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 기행일기는 선조들의 여행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행은 문학, 사학, 문화콘텐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소재이다. 기행문학의 특징을 가르칠 때, 선조들의 여행 과정을 설명할 때, 여행 관련 사건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기행일기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행이라 하면 유람을 생각하게 된다. 유람 여행을 담은 기행일기는 풍부하기 때문에 기행일기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전반적인 유람 여행을 설명할 수 있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교 소재지를 고려하여 인근에 있는 산이나 명소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기행문학, 여행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다.

<표8> 경주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동경유록 (東京遊錄)	간재집 (艮齋集)	이덕홍 (李德弘)	1541~1596	1579년 4월 17일~21일
2	계림록 (鷄林錄)	추옹집 (拙翁集)	홍성민 (洪聖民)	1536~1594	1580년~1590년
3	동경방고기 (東京訪古記)	석당유고 (石堂遺稿)	김상정 (金相定)	1727~1788	1760년 2월
4	동경유록 (東京遊錄)	당주집 (鎗洲集)	박종 (朴踪)	1735~1793	1767년 9월 25일~12월 7일

5	유동도록 (遊東都錄)	강와문집 (剛窩文集)	임필대 (任必大)	1709~1773	1767년 10월 1일~11월 4일
6	유동경록 (遊東京錄)	지촌유집 (芝村遺集)	박이곤 (朴履坤)	1730~1783	1773년 10월 4일~20일
7	순오기행 (旬五記行)	태을암집 (太乙菴集)	신국빈 (申國賓)	1724~1799	1790년 9월 24일~10월 9일
8	유관록 (遊觀錄)	묵암문집 (默庵文集)	허강(許 綱)	1766~1822	1799년 3월 12일~4월 7일

위는 경주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경주를 경유하거나, 경주에 있는 산만을 유람한 경우는 제외하고,²⁸⁾ 경주 유람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만 정리하였다.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는 동경(東京), 동도(東都)라는 명칭으로 기행일기 속에 등장하고 있다. 경주 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선조들의 여행을, 경주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에게는 여행 가는 지역의 여행의 역사와 장소적 의미를 설명할 때 위의 일기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유람 여행을 담은 일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람 외 다양한 목적의 기행 일기들을 통해 선조들의 여행 과정을 가르치고, 이러한 여행 속 일화들을 문화콘텐츠로 재탄생 시키는 과정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초중고 교육과정 중 국어, 문학, 국사 과목 교육과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사학과, 역사교육과, 문화콘텐츠학과의 전공 수업, 인문학 관련 교양 수업에서의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 기행일기는 선조 선양을 위한 활동 파악에 활용할 수 있

28) 예컨대 김수흥(金壽興, 1626~1690)의 「남정록(南征錄)」(1660년)의 경우 경주 유람이 여정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이채(李埰, 1616~1684)의 「유도덕산록(遊道德山錄)」(1643년)의 경우 경주에 위치한 도덕산을 유람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선조를 추모하고 선조를 선양하여 가문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선조의 정려를 청하거나 알려진 인물에게 선조에 대한 글을 받는 것,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선조 선양을 위한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행일기 중에는 그를 위한 여정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일기가 있어 이를 선조 선양을 위한 활동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선조 선양 활동은 고문서, 생활일기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권수용은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후손인 유복삼(柳復三, 1728~1813)의 선조 선양 활동을 고문서와 일기를 통해 파악하기도 하였다.²⁹⁾ 여기에 행장, 묘갈명, 기문 등을 받기 위한 여정, 문집이나 족보 간행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여정, 정려를 청하기 위한 여정 등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기행일기를 더한다면 선조 선양 활동은 더 입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기행일기 1,279편을 대상으로 하여 여행 목적을 살펴보고, 여행 목적을 바탕으로 한 기행일기의 활용 방안을 정리하였다.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중 가장 많은 것은 유람으로서, 전체 기행일기의 약 80%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는 기행일기 속 주된 여행 목적으로서 유람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기행일기 속 유람 장소는 경치가 빼어난 명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고도(古都), 사찰, 누정, 서원 등 다양하였으며, 관동 지방, 호남지방처럼 넓은 권역을 유람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람 과정을 보면 일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갔다가 인근을 유람한 경우가 많으며, 유람만을 위해 여행길에 오르는 것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기행일기 속 다양한 여행 목적을 살펴피고, ‘과거 응시 및 스승

29) 권수용, 「眉巖 후손 柳復三의 爲先 활동」,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관련’, ‘관직, 유배 관련’, ‘성묘, 문헌 간행 등 선조 관련’, ‘기타(온천, 상소, 모임 등)’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응시를 위한 여행, 스승을 배종하기 위한 여행, 관직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여행, 유배인을 만나기 위한 여행, 성묘를 위한 여행, 선조에 대한 글을 받거나 문집과 같은 문헌 간행을 준비하기 위한 여행, 기타 온천욕, 상소 준비, 모임 참석을 위한 여행 등 조선시대 다양한 목적의 여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여행 목적을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선조들의 여행 관련 미시적인 삶 파악에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선조들의 여행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셋째, 선조 선양을 위한 활동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필자는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1,279편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시기별로 살핀 논문을 최근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그에 이어진 것으로서 여행 목적을 파악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었다. 이후에는 기행일기 속 여행 지역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발표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시기별, 여행 목적별, 여행 지역별로 살핀 연구가 마무리 되면, 1,200편이 넘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金孝元, 『省菴遺稿』

李德懋, 『靑莊館全書』

鄭詳, 『滄洲遺稿』

趙任道, 『澗松集』

『論語集註』

전송열·허경진 편역,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돌베개, 2016.

성백호 역주, 『懸吐完譯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4.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 2019. 5. 31.

권수용, 「眉巖 후손 柳復三의 爲先 활동」,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251~281면.

김미선,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논문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409~440면.

_____,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417~450면.

_____,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3~36면.

김호, 「정치적 시험의 장이 된 왕세자의 온천여행 - 조선 왕가의 치병기」, 『조선 사람의 조선여행』, 글항아리, 2014, 56~57면.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 무관 노상추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너머북스, 2009, 89~147면.

박영호, 「조선시대 관료의 공적 여행과 그 기록 - 晩悟 朴來謙의 경우」, 『동방한문학』 59, 동방한문학회, 2014, 49~78면.

성봉현, 「『누판고』를 통해 본 정조대의 책판 현황」,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4, 188면.

송혁기,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7, 70면.

-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15면.
- 이종묵,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81면.
- 임노직, 「소백산의 문학적 형상화 고찰」, 『한문학논집』 38, 근역한문학회, 2014, 347~389면.
- 정치영, 「日記를 이용한 조선중기 양반관료의 여행 연구」, 『역사민속학』 2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71~106면.
- _____,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10면.
-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14~15면.
- _____, 「조선후기 영남선비들의 여행과 공간감성 - 18세기 영남선비 淸臺 權相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한문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373~409면.
-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838~849면.

【Abstracts】

Travel Purposes in Joseon-era Travel Diaries

Kim, Misun

This study presents the travel purposes, and measures for using such travel diaries after examining 1,279 pieces of Joseon-era travel diaries. Chapter 2 examines the sightseeing as the main travel purpose as revealed in the travel diaries. The sightseeing places are various, including famous mountains, ancient towns, Buddhist temples, and pavilions. Sightseeing also occurs in expansive areas such as Gwandong and Honam. Many sightseings occur as the diary writers visit the relevant places due to business with a number of sightseings conducted only for the sake of travel.

Chapter 3 examines the various purposes of travel shown in travel diaries. The revealed travel purposes include travels for taking the Gwageo examination (prestigious government employee recruitment test), travels for accompanying teachers, travels for meeting people in office or in exile, travels for preparation for/holding ancestral rites such as visits to the ancestral graves and preparation for the publication of literature, travels for hot spring bathing, and travels for preparation for lodging petitions to the king and for attending meetings.

Chapter 4 presents three summarized measures for utilizing travel diaries based on travel purposes. First, Joseon-era travel diaries can be used to identify the decent lives of our ancestors. Second, they can be used as educational material for reviewing our ancestors' travels. Third, they can be used to identify activities designed to promote the

achievements of our ancestors.

Key Words : Travel diary, travel purpose, sightseeing, Gwageo, exile,
publication of literature, promotion of ancestors

이 논문은 2019년 06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